

무기질 비료산업 발전 방안(2016.3.3)

한국비료협회 전무이사 김문갑

1 무기질 비료 현황

가. 생산 및 소비 동향

- 2000년대 접어들어 소비감소와 수출부진으로 무기질 비료산업의 가동률은 80%에서 **48%** 수준으로 지속 하락
- 2015년도 생산은 황산암모늄의 급격한 수출 감소와 내수 소비 부진으로 인해 전년도보다 13.7% 하락한 **2,002천톤** 기록

< 연도별 비료 수급현황 >

[단위 : 천톤(실증량), %]

연도	구분	생산능력 (A)	생산량 (B)	소비량	수출량	가동률 (B/A)
1965		191	164	1,033	-	85.9
1970		1,354	1,321	1,215	129	97.6
1975		1,905	2,075	1,941	-	108.9
1980		3,341	2,854	1,679	1,309	85.4
1985		3,276	3,000	1,737	1,279	91.6
1990		4,032	3,752	2,365	1,169	93.1
1994		4,688	4,339	2,101	1,517	92.6
2000		4,588	3,729	1,875	1,342	81.3
2005		3,857	3,950	1,877	1,479	102.4
2010		4,299	2,815	1,106	1,529	65.5
2011		4,299	2,738	1,110	1,637	63.7
2012		4,299	2,577	1,182	1,395	60.0
2013		4,144	2,577	1,144	1,429	62.2
2014		4,144	2,320	1,132	1,140	56.0
2015		4,144	2,002(추정)	1,085(추정)	883	48.3

※ 94년 무기질비료 생산량 최고 기록(4,339천톤)

※ 자료: 한국비료협회, 비료연감, 수출에서 2013, 2014년도 관세청 통계자료 인용

나. 수출·입 동향

< 수출 >

- 무기질비료 수출은 130~150만톤을 유지, **2015년** 수출 물량은 **883천톤**, 금액으로 **304백만불**

< 연도별 수출 실적 >

구 분	1990	2000	2005	2008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물량(천톤)	1,169	1,342	1,479	1,386	1,529	1,637	1,395	1,429	1,140	883
금액(백만불)	175	190	292	741	399	569	483	463	357	304

※ 자료 : 2012년까지 협회 통계, 2013~15년도 관세청 통계 인용

< 연도별 비종별 수출 실적 >

(단위 : 물량 천톤)

구 분	1990	2000	2005	2008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황산암모늄	220	364	567	613	694	723	673	733	367	150
복합비료	861	843	853	749	809	877	703	599	663	610
기 타	88	135	59	24	26	37	19	97	110	123
합 계	1,169	1,342	1,479	1,386	1,529	1,637	1,395	1,429	1,140	883

※ 자료 : 2012년까지 협회 통계, 2013~15년도 관세청 통계 인용

- 동남아지역에서 한국의 복합비료는 품질면에서 우수하여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으나, 가격면에서 저가의 중국·러시아산 제품에 밀리면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황산암모늄 수출물량 급감), 필리핀 지역의 수출물량이 감소하고 있음

< 수입 >

- 국내 무기질비료 생산을 위해 필요한 요소, 염화칼륨, 인광석 등의 비료원료는 **100%** 수입하고 있음

< 비료 원자재 수입 현황 >

구 분	2005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물량(천톤)	2,890	2,610	1,176	1,844	1,820	1,595	1,431	1,568	1,527
금액(백만불)	478	955	459	493	606	626	517	453	424

※ 자료 : 관세청 통계자료 인용, 원재료 수입(요소, 염화칼륨, 인광석)

염화칼륨 수입량에는 타산업(가성소다) 원료 포함

2 무기질 비료 발전 방안

가. “저품질”과 “원산지 위반 비료”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전체 복합비료 수입량 중 국별 수입 비중을 보면 중국의 수입량이 2009년, 2010년 55~57%였고 2012년~2014년도 22~35%로 일시적인 하락을 보였으나 2015년도 32%로 다시 증가하고 있고 복합비료 완제품의 수입이 증가하고 있음

※ 중국의 복비 일부(310520) 완제품 수입 추이

‘11(4,239톤) → ‘14(6,167) → ‘15(10,745, '11대비 153% 증가)

※ 자료 : 관세청 통계자료 인용

- 중국의 비료 생산 기술 향상으로 비료 품질이 좋아지고 있어 복합비료 완제품의 수입이 한-중 FTA 체결 후 매우 증가될 것으로 보여 “원산지 표시 위반”의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

< 복합비료의 국가별 수입현황 >

(단위 : 톤)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복비 연간 수입량	102,462	128,515	176,654	211,425	197,118	249,826	220,369
- 중국 수입량	57,886 (56.5%)	71,198 (55.4%)	61,464 (34.8%)	53,669 (25.4%)	42,620 (21.6%)	65,913 (26.4%)	70,069 (31.8%)
- 베트남 수입량	17,549 (17.1%)	10,298 (8.0%)	39,935 (22.6%)	99,665 (47.1%)	94,249 (47.8%)	130,636 (52.3%)	90,874 (41.2%)
- 대 만 수입량	10,745 (10.5%)	20,683 (16.1%)	53,255 (30.1%)	33,092 (15.6%)	25,187 (12.8%)	27,620 (11.1%)	31,292 (14.2%)
3개국 수입량 (복비 총수입량에 대한 비중)	86,180 (84.1%)	102,179 (79.5%)	154,654 (87.5%)	186,426 (88.1%)	162,056 (82.2%)	224,169 (89.8%)	192,235 (87.2%)
- 일 본 수입량	4,207	4,804	4,338	5,146	6,429	4,788	6,016
- 미 국 "	2,946	7,831	3,005	2,694	2,876	2,581	1,952
- 네덜란드 "	2,672	2,269	4,056	3,138	4,573	4,286	3,930
- 이스라엘 "	1,255	1,698	1,264	1,900	1,892	2,259	2,149
- 독 일 "	1,118	715	1,412	1,936	1,461	2,338	2,522
- 벨기에 "	655	2,888	2,330	2,224	2,248	1,651	2,111
- 노르웨이 "	267	497	1,010	1,160	1,836	1,467	2,344
- 이탈리아 "	247	405	925	1,120	1,191	1,652	1,766
8개국 선진국의 수입량 (복비 총수입량에 대한 비중)	13,367 (13.0%)	21,107 (16.4%)	18,340 (10.4%)	19,318 (9.1%)	22,506 (11.4%)	21,022 (8.4%)	22,790 (10.3%)

※ 자료 : 관세청 통계자료 인용

나. 국내 비료산업을 유지하기 위한 “비료공급제도 개선” 마련 필요

- 국내 소비량 감소와 수출 부진으로 인해서 각 업체별 공장 가동을 유지할 위한 물량 확보에 어려움이 가중됨
 - 소비량은 '14년 대비 4.2% 감소, 수출량은 '14년 대비 22.5% 감소
 - ※ 소비량감소: '90(2,365천톤) →'05(1,877) →'12(1,182) →'14(1,132) →'15(1,085)
 - ※ 수출량감소: '90(1,169천톤) →'05(1,479) →'12(1,395) →'14(1,140) →'15(883)
 - ※ 자료 : 한국비료협회(소비량) 및 관세청(수출) 통계자료 인용

- 농협의 비료인수 물량이 점점 축소 됨으로 인해서 비료공장 가동 유지를 위한 “물량 확보” 측면에서 시장 예상가격 보다 낮은 입찰 가격으로 물량 확보 발생
 - ※ 농협 비료인수 추이 : '11(1,059천톤) →'13(935) →'14(892) →'15(806)
 - ※ 자료 : 농협의 각연도('11, '13, '14, '15년) 비료사업통계요람 자료 인용

- 농업경쟁력 강화 및 안정적 농업자재 공급을 위해서 농자재 생산 업체의 생존이 필요하며, 농자재 생산업체가 생존하고 농업인에게 품질 좋은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비료공급제도 개선” 필요

- “비료공급제도 개선”은 비료 생산업체, 농업인 단체, 농협중앙회가 공동 참여, “비료 공급가격을 협의”하여 결정하며, 농업인은 고품질의 비료를 공급받고 비료생산업체는 합리적 시장가격에 공급하여 지속 가능한 농자재 산업을 유지하는 것임

다. 수출활성화를 위한 애로 및 건의사항

< 애로 사항 >

- 비료제품 제조에 필요한 주요 원재료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경쟁국(중국, 러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대비 수출가격 경쟁력이 취약

- 비료 생산을 위한 주요 원재료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기초원재료 수입금액 결제시 환 리스크 등으로 인한 수출 가격경쟁력 저하 발생

< 건의 사항 >

-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원자재(요소, 암모니아, 황산칼륨, 황산칼륨고토 등)에 대한 **할당관세 또는 제로관세 적용**
 - ※ 요소(2%), 암모니아(1%), 황산칼륨 및 황산칼륨고토(6.5%) 수입물량이 큰 **요소(50만톤), 암모니아(120만톤)**는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로관세가 필요**

- 기초원재료(암모니아, 인광석, 염화칼륨 등)구입 자금에 대한 **저리융자(0.5~1.0%) 지원**

- 시장개척을 위한 농기자재 박람회 공동개최 및 비료공급체계 개선